

“지역사회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

대상 순창공장-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순창 아동 대상 쿠키 클래스 체험 진행

대상(주)순창공장(공장장 임병용)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전북지역본부장 문정훈)은 최근 순창지역의 아동 50여명과 순창고 네이케어 봉사 동아리 6명이 함께 마카롱,컵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했다.

이번 체험은 문화체험 및 다양한 활동 기회가 적은 순창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마카롱과 컵케이크의 제작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재료를 이용하여 제과를 만들어 먹는 과정을 통해 음식을 이해하기 위해 진행했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박진술(11,여, 가명) 아동은 “제과점에서 사 먹던 빵들을 직접 만들고 내가 직접 꾸며볼 수 있어 신기하고 즐거웠다. 집에 가서 가족에게 내가 만든 마카롱과 컵케이크를 자랑하고 같이 맛보고 싶다.”고 전했다.

임병용 대상(주)순창공장장은 “성장기 때 아이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은 향후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성 함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아동들이 관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주)순창공장은 ‘청정원어린이회’ 활동을 현재 17번째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으며, 그 외 지역사회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며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상(주)순창공장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순창지역의 아동대상으로 마카롱,컵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남원소방서, 사천소방서 의소대와 교류행사

남원소방서는 지난 25일 교통산 국민관광지에서 남원의용소방대와 경남 사천 의용소방대와 영·호남 화합과 의용소방대 상호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자매결연’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 기관 150여명이 참여했으며, 남원의용소방대는 그동안 20년 자매결연을 이어온 사천의용소방대원들을 초청해 의용소방대 수범사례 전파 및 선진소방기술을 상호 교환하고 교통산 둘레길 체험 등으로 상호 우의를 다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경찰, 청소년 선도·지원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 여성청소년계는 27일 오전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생활안전교통과장 등 외부위원 2인을 비롯해 총 6인이 참석해 1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선도심사위원회에서는 소년법에 대한 처분 결정 없이 불우 청소년 4명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결정에 대해 협의했다. 외부위원으로 참석한 이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은 “이번 회의로 알게 된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경찰,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최근 남원중앙교회를 방문해 신도 6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르신 교통사고 유형과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소개하고, 보행사고와 더불어 이륜차 사고가 많아 이륜차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을 강조했다. 이륜차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안전장치가 별도로 없어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안전모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강조하며 안전모 착용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경찰, 전국 소년체전 앞두고 성범죄 예방활동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27일 관내 전국 소년체전을 앞두고 실천면 태권도원 내 화장실, 탈의실 및 숙소 객실을 대상으로 성범죄(불법 촬영 등) 예방 합동 점검 및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여성청소년계, 지역경찰, 군청 위생팀, 시설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시설 내 설치될 우려가 있는 곳과 시인성 있는 장소에 불법촬영 경고스티커를 부착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힘썼으며, 보유 중인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시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사랑의 헌혈캠페인 ‘성황’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문정훈)은 지난 24일과 27일 이틀 간 사내 각 식당 앞에서 2019년 상반기 사랑의 헌혈캠페인을 전개했다.



한미음혈액원과 함께 사내 3개 식당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실시한 이번 헌혈캠페인에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행렬이 줄을 이어 성황을 이뤘다. 현대자동차는 긴급한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19년째 꾸준히 사랑의 헌혈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1월과 7월에도 4차례 실시해 25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이에 합입어 공식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16년만인 지난 2016년 누계 참여인원 5,000명 돌파라는 의미 있는 기록도 세운 바 있다.

이들 헌혈 참여자 가운데는 전혈과 성분 헌혈을 합해 30~200회 이상씩 참여함으로써 헌혈유공 금장과 은장 등을 수여 받은 직원들도 여럿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비전대, 해외 취업 캠프 개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최근 군산 정자동에서 청해진대학사업 K-MOVE스쿨과정 연수생 15명을 대상으로 2019년 1차 해외 취업 캠프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해외 취업에 필요한 절차 및 자기분석, 기업분석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해외 취업에 필요한 절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일본 회사 문화 이해 △인·적성 검사를 통한 진로 계획 수립 등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고, 둘째 날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등이 이어졌다. /장은성 기자



드라마 질투 OST 가수 유승범, 군산시 홍보대사 위촉

민선7기 시민이 함께하는 지립도시 군산시가 시청 홍보대사로 가수 유승범씨를 위촉했다.

시는 27일 정회상 국제관계명예자문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씨에게 시청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의 대외 이미지를 밝게 채산하고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시청홍보대사에 위촉된 가수 유승범씨는 90년대 인기드라마 ‘질투’의 OST 가수로 유명하며 여러 가수의 프로듀서로 참여하고 여수엑스포 시민축제 음악감독, 군산진포국제예술제 총감독 등을 역임했다.

유 홍보대사는 20여년 동안 군산에서 살았던 인연과 군산에 대한 깊은 애郷심을 바탕으로 홍보대사에 선정됐다.

홍보대사로써 향후 2년 동안 국제자매도시 간 예술교류 행사, 지역 축제 참여,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